

**우리** 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은 1884년 인천항 부근에 세워진 대불호텔로서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구미인을 상대로 영업하였다고 한다. 이후 1902년 정동에 러시아공사 웨벨의 조카 손탁이 세운 손탁호텔이 서울에 건립된 최초의 호텔이 되었고, 근대적 의미에서의 호텔의 모양을 갖춘 것은 1912년 부산과 신의주에 건립된 철도호텔과 1914년에 건립된 조선호텔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호텔들은 현재 영업중인 호텔과 비교하면 규모나 시설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의 호텔이 왕족등의 상류층과 외국인 중심의 시설이었다면, 요즘의 호텔은 숙박시설의 기능에서 벗어나 각종행사를 위한 장소 제공은 물론 연회장, 헬스클럽, 문화행사장, 각종 휴게실 및 식음시설, 아케이드, 오락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용도의 사교장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의 이용이 보편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계층

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로 바뀐에 따라 출화의 위험이 높아지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발전,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게 되었다.

70년대 이후만해도 국내에서는 대연각호텔, 금호호텔, 대야호텔 등 고층화된 대형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뒤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호텔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게 되었다.

더우기 관계기관과 호텔 경영주들이 호텔의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게 되면서 건물 내장재의 불연화, 자동식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경보설비의 정비 등 호텔의 소방력 강화에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축호텔은 물론 기존의 호텔 역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방시설을 갖추므로써 화재에 취약한 호텔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

## 탐방 / 호텔 뉴월드

#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중점



전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이용객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호에는 강남지역의 호텔 중 최대 규모인 호텔 뉴월드(사장 : 박 자금, 최 정덕)을 찾아 방화관리 실태를 알아 보았다.

### • 개요

강남구 삼성동 112-5소재 뉴월드 호텔은 지하3층, 지상12층, 연면적 2만4천1백9평방미터(7천3백5평)로 객실 220실과 대소 연회장, 각종 요리점, 아케이드, 헬스클럽, 오락시설 등을 모두 갖춘 특급관광호텔이다.

수용인원 1천5백명에 상주인원만도 5백명이 넘는 강남 지역의 다기능 사교장으로서, 88올림픽에 대비, 호텔의 모든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키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 방화시설 및 유지관리

호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와 53개소의 옥내소화전,

72개 회로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지하1층 방재실에서 상호 연동하여 감시 및 제어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외에도 1백30개의 초기소화기와 비상전화,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설비가 설치되어 효과적인 화재상황통보와 소화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유사시 건물내에서 발생 체류하는 연기를 옥외로 배출시키기 위한 배연설비는 64개소의 급·배기구를 설치, 각 영업장별로 배연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은 가장 안전한 피난통로로 유지토록 시공, 운영되고 있다.

또한 피난유도를 위해 대소 2백60개의 유도등과 2백20대의 간이완강기를 구비하였으며 750Kw용량의 발전기로서 전층의 소방동력과 전 조명회로에 전력을 공급, 정전으로 인한 패닉현상 방지에 신경을 쓰는 등 비상조명설비면에서도 거의 완벽을 기하고 있다.

방재실에는 전기, 기계, 가스, 안전, 방화담당으로 조직된 전담요원이 상주하여 수시로 각 설비의 기능을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보수업무를 병행 실시하며 이러한 관리와는 별도로 각종 대형 행사에 대비한 특별 정밀진단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방화관리 및 교육훈련

호텔 뉴월드는 관리담당상무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설비과장과 영업장 책임자들로 구성된 방화대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협의사항과 각종 소방훈련에 따른 지원, 협조문제등 방화관리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화기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전열기 사용통제,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등 불안요소 제거를 위해 청원소방관으로 하여금 일일 4회이상 방화순찰을 실시한다.

이처럼 방재실에서의 정기점검과 청원소방관의 순찰을 병행함으로써 각종 위험요소 제거는 물론 전 설비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별도로 2분대 기조(4명으로 구성)를 편성하여 유사시에 초기진화작업과 인명 안전대피유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호텔화재는 야간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 부서별 야간근무자 35명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불시훈련을 실시, 화재발생시 각자에 부여된 임무를 침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시키고 있다.

소방교육등 훈련불참자에 대하여는 1차 본인, 2차 영업장 책임자, 3차 부서장 문책등 강력한 인원 동원방침이 세워

져 있으나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훈련계획에 애로점은 없었다고 한다.

화재진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명대피라는 점을 강조하여 각 영업장별로 신속한 고객의 피난유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음을 물론이다.

#### • 경영진의 관심

대형건물의 방화관리는 경영진의 방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적인 방화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호텔 뉴월드는 처음에는 경영진의 방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호텔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소방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지역소방자문의원으로 활동하는등 방화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화협의 안전점검 결과에서 권장된 사항에 대하여도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경영주의 방화관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짐작할 수 있게된다.

소방공무원 생활을 포함 23년간을 방화관리업무에만 종사해온 이 규삼 방재실장은 화재예방업무에 대하여 「화재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방화관리업무의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자발적인 근무의욕과 사명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화관리자 제도에 대하여 「방화관리자에게도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등급을 정하여 건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등급별 자격증 소지자를 방화관리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직급도 현재의 과장급에서 능력이나 건물규모에 따라 부장급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책임있는 방화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대하여 「각 전공분야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어 외부 점검기관중 가장 정밀하고 정확하다. 특히 건축이나 전기분야는 일반적으로 잘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다만 건물의 특성이 감안된 안전점검을 해주었으면 더욱 좋겠다」고 덧붙였다.

화재로 인하여 망하지 않으면 경영 잘못으로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소 임직원에게 강조해온 호텔롯데 신 격호회장의 말이 우리 모든 경영진에게 귀감이 되어 모든 건물과 시설에 완벽한 방화설비가 갖추어져 재난없는 사회가 이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

• 글 / 이 상 건 (홍보부 대리)